데스크시각

광주형 일자리, 광주의 미래

홍 행 기
편집부국장 겸 정치부장

"우리 경제가 언제 안 어려운 적이 있었나?" 지난 수십 년간 정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며 힘들게 살아 온 호남 지역민들이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조하듯 내뱉어 온 말이다. 하지만 살기 어려운 것이 우리 호남만은 아니었나 보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이야기를 했으니 말이다. 그는 지난달 30일 서울서 열린 '2018년 상생과 통일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 경제가 언제 안 어려운 적 있었나"라고 했다. '한국'이라는 단어만 빼면 우리에게 익숙한 '언제 안 어려운 적이 있었나'라는 말이 국가 경제 총수의 입에서도 나온 것이다.

그의 말대로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낙후한 우리 호남 경제는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더욱 어려워서,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과 중국 기업에 매각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활력을 잃어버렸다. 지난달 공장 가동률이 67%에 그친 것은 물론 공장 휴무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공장이 있다'는 것만으로 타 지역의 부러움을 사온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도 올 매출이 전년보다 14% 이상 줄었다.

짙은 먹구름 속 한 가닥 희망

제조업 체감 경기는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 수출도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업률은 두말할 것 없이 역대 최악이다. 문제는,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의 희망도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지역경제전망(BSI: Business Survey Index)에서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짙은 먹구름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걸게 하는 일이 최근 광주에서 진행 중인데 바로 '광주형 일자리'다. 현대차의 경영난 그리고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의 반대가 막판 걸림돌이긴 하지만, 광주시와 한국노총이 '임금을 적게 주는 대신 충분한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부족한 일자리를 나누는' 광주형 일자리 도입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광주·전남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 절벽에 신음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형 일자리 성사는 청년들에게 그야말로 단비 같은 소식에 틀림이 없다. 온갖 난관을 넘어 광주형 일자리가 성사되고, 빛그린산단에 1000㏄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연간 10만대 생산할 수 있는 '현대차 합작 완성차 공장'이 들어서면 연봉 3500만 원 수준의 일자리 1만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업비 7000억 원이 투입되는 공장 설립 과정에서부터 지역에 일자리가 공급되면 그동안 말라붙었던 지역 경제의 혈관에 피(돈)가 흐르고 광주·전남 지역 가계에서도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꼭 성사되도록 타협과 조정을

물론 현대차의 경영난과 노조 및 민주노총의 반발은 반드시 넘어서야 할 산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최근 각 언론에 보도 협조 요청서를 보내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광주 노동계 전체를 대변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며 광주형 일자리 보도 시 '노동계'라는 표현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 역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천명해 놓은 상태다.

그럼에도 지역과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광주형 일자리'는 반드시 성사되어야 하는 절대 과제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의 반발을 일방적으로 무시해서도 안 되겠다. 민주노총 및 현대차 노조와 함께하지 않으면 광주형 일자리의 성사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몇 번이고 다시 만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당시 포럼에서 "한국 경제가 안 어려운 적이 없었지만, 그때 그때 극복하고 만든 것이 한국 경제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정책적으로 고려할 점들, 수정 보완할 점들, 미흡한 점들이 있겠지만 극복 과정이라며 "타협과 조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형 일자리가 9부 능선을 넘은 지금, 우리 광주에 꼭 필요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redplane@kwangju.co.kr

은펜칼럼

우리밀 씨뿌리기와 먹거리 의병 운동

류 동 훈
더하기지구운영협의회 사무국장

필자가 살고 있는 광주 광산구 본량동은 광역시 관내에 있는 농촌동이다.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이 아름답고 왕동 저수지에서 저수지 너머 용진산을 바라보는 풍경이 무척 매력적인 곳이다. 요즘 누런 황금 들녘의 벼를 베어 내고 난 자리에 논 바닥 벼 밑둥을 태우고 다시 겨울 농사를 위해 논을 갈고 있는 중이다. 이곳은 우리밀 주산지로서 우리밀 싹이 겨울눈 속에서도 자라고, 3월이면 푸른 밀밭이 넓게 펼쳐진다.

그런데 요즘 농민들의 말을 들어 보면 금년에는 밀 재배를 하지 않고, 보리를 뿌리거나 겨울 농사를 포기하겠다는 분들이 많다. 우리밀의 소비가 적어 재고량이 창고에 많이 남아 있고, 우리밀 수매 대금도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우리 민족의 식량 중 쌀 다음으로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밀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우리밀 한 주먹으로 시작했던 우리밀 살리기 운동이 넓은 우리밀밭을 만들었으나, 최근 소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렵게 되살린 우리밀의 희망은 다시 꺼질 우려가 있다. 몇 달전 '인랑'이라는 영화를 본적이 있다. 통일 한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통일을 이루어 갈 때 민족 자주 경제를 이루지 않으면 외세의 경제적 압박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어 오히려 반통일 운동이 시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스토리다.

지금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 제거라는 이유가 있어서 미국을 비롯한 외세 강대국들이 남북 화해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핵무기 위협이 제거 된 이후에 구체적인 통일의 로드맵이 진행될 때 한반도 통일에 대해 과연 주변 강대국들이 우호적으로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그동안 역사의 흐름을 보았을 때 주변 열강들은 한반도가 강대국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 왔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따라서 통일 한국을 위해서는 민족자주 경제가 중요하고, 특히 식량은 안보 차원에서 자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우리밀이 수입 밀에 밀려서 재배를 포기하게 되는 지금 이 상황은 수입 밀의 공격으로 식량의 '안시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며, 임진왜란 때 밀려오는 왜선들에 의해 남해 한산도 앞바다가 뚫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역사 속에서는 민족이 위기에 닥칠 때 항상 의병들이 나서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었다.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내린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는 이름 없는 의병들을 조명했었다. 의병들은 보안 유지를 위해 이름을 '김 아무개', '이 아무개' 이렇게 서로 불렀다고 한다.

지금 농촌 들녘에서 어렵게 살려 놓은 우리밀의 희망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밀을 지켜내기 위한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진 의병들이 나서주어야 한다. 일제 강점기 때 민족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던 의병처럼 가장 중요한 민족 먹거리, 건강 먹거리를 지키는 '먹거리 의병 운동'이 시작돼야 한다. '먹거리 의병'중 생산자 의병은 토종 종자를 지키며 친환경 농사를 보급하고, GMO(유전자 변형) 농작물 퇴치 운동을 한다. 소비자 의병들은 우리 농산물, 지역 로컬 푸드 농산물 소비 운동을 펼치고 친환경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며 도시 농업과 농촌 체험 등을 하며 생활 속에서 생태적인 먹거리 운동을 펼쳐 가는 것이다.

이런 시기에 본량동 농촌에서는 폐교를 리모델링한 더하기센터에서 지역 사회단체들이 힘을 합해 도농 교류를 촉진하는 '도농 더하기 축제'를 오는 17일 연다고 한다. 이날 오전 10시에 더하기센터 앞 들녘에서는 우리밀 씨뿌리기 체험이 있다. 우리밀 씨를 뿌리는 장등 마을은 항일 의병장이신 이기손 장군의 생가가 있는 곳이다. 의병 정신의 기를 받아 직접 손으로 뿌린 우리밀 밭에서는 내년 3월 푸른 밀 싹 위에서 밀밭 밟기 행진이 진행되고, 5월이면 밀 수확해서 밀 사리를 구워먹는 체험이 진행된다.

그리고 이날 더하기센터에서는 우리밀 피자도 만들고 강강술래, 용진산 가요제, 마을 영화 상영 등 도시민과 농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행사들이 준비돼 있다. 이렇게 직접 손으로 뿌리고, 밟고 쓰다듬어서 길러 놓은 우리밀을 시민들은 애정을 가지고 소비해 건강도 지키고 식량 안보도 지켜낼 것이다. '먹거리 의병'의 진군의 북소리에 맞추어 내년에는 천 명, 그 다음해에는 이천 명의 시민들이 들녘에서 '학익진'을 펼치며 우리밀 씨를 손으로 뿌리고, 북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며 밀밭 밟기를 한다면 단언컨대 먹거리 운동은 판이 뒤집어 질 것이다.

기 고

동창회를 고향에서 하면 어떨까?

조 교 식
장흥용산초교(51회) 동창회장

"자네 누구 아닌가~?" "이~. 나 누구네이." "아따, 이것이 얼마 만이당가? 잘 살었능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다. 다소 상기되고 과장된 말투 속에 반가움이 진하게 묻어났다. 엊그제 만난 친구도 있었고, 몇 년 만에 만난 친구도 있었고, 심지어는 근 40년 만에 처음 만난 친구도 있었다. 하도 오래 되고, 하도 많이 변해서 얼른 알아보지 못한 친구도 있었다. 고향 떠나 객지 생활하느라 말투가 바뀐 친구도 있었고, 지나온 삶이 고달팠는지 유독 주름살이 많이 잡힌 친구도 있었다. 공직에 나가 나랏일 보는 친구도 있었고, 크게 사업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만그만하게 사는 친구도 많았다. 이런 저런 친구들이 모였지만, 어색함은 잠깐일 뿐 금방 아무렇지 않게 버무려졌다.

최근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장흥 용산초등학교 제51회 졸업생이 한 자리에 모였다. 38년 전 졸업한 130여 명 중 50명 가까운 친구들이 모였다. 장소는 모교(母校)와 그리 멀지 않은, 지금은 문을 닫은 학교를 리모델링해 체험 학교로 꾸며놓은 곳이다. 모교 가깝고, 숙식 제공이 가능하니 동창회 장소로는 안성맞춤이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장에서 공도 차고, 술잔 기울이며 어릴 적 기억과 지나온 삶을 더듬으면서 회포도 풀었다. 동창회 발전을 위한 진지한 얘기도 나눴다. 함께 교가를 부를 때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튿날 일요일 아침, 밤새 전투 치르느라 쓰린 속을 해장국으로 다스리고 모교로 이동했다. 많이 달라졌다. 교문도 달라졌고, 교사(校舍)도 달라졌다. 교장 선생님 관사 자리에는 주차장이 생겼고, 대각선 맞은편 운동장 끝 팽나무 뒤로는 멀리 부용산을 배경으로 새로 건물이 들어섰다. 다행히 교목 히말라야시다는 여전히 그 기상을 뽐내고 있었고, 시간의 더께가 내려앉은 이순신 장군 동상은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 넓던 운동장이 좁아 보였다. 운동장보다 더 초라해진 건 학생 수였다. 우리 때는 한 학년에 세 반, 한 반에 4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전 학년 합쳐서 50명 밖에 안 된다고 했다. 그것도 면 내 세 개 초등학교가 합쳐졌는데도 말이다. 이러다 머지않아 문을 닫는 건 아닐까 염려가 됐다. 나오는 길에 안내를 맡아준 행정실 선생님께 미리 준비한 정성도 건넸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후배들 꿈을 키우는데 보태 쓰시라는 말과 함께.

내친 김에 용산중학교에도 들렀다. 원체 시골이다 보니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가 따로 없다. 중학교라고 해서 초등학교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애잔했다.

학교를 나와 장터로 향했다. 마침 오일장이 열리는 날이었다. 용산장은 1일과 6일에 열린다. 장터도 많이 쪼그라들었다. 학교 파하고 장터에 들러 사먹었던 '덴뿌라' 맛은 새로운 세상이었는데. 시끌벅적했던 장이 이제는 겨우 시늉만 남아 있었다. 덴뿌라 가게도 튀밥 튀던 아저씨도 온데간데없었다. 부침개 가게 앞에 판을 펴고 막걸리로 거나하게 뒷풀이를 했다. 오랜만에 사람 사는 것 같다고, 장터에 활기가 돈다는 말이 들렸다. 장터는 늘 그래야 하는 것인데.

"조심해서 잘 가소~이." "그래. 반가웠네~이. 내년에 또 보세~이."

1박2일 간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제각각 삶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늘 그렇듯 만날 때 반가움보다 헤어질 때 아쉬움이 더 큰 법이다. 또 만나자는 약속을 뒤로한 채 갈 길이 멀어 서둘러 발길을 돌렸다. 고향에 사는 친구들이 객지 친구들을 배웅하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부용산이 높이 솟아 근원이 됨에/ 여윗냇물 맑게 흘러 열린 벌판에/ 성스럽게 터를 닦는 우리 용산교/ 자손만대 이 강산에 길이 빛내세"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전날 밤 동무들과 함께 불렀던 교가가 귓가에 쟁쟁 거렸다. '모교는 평생의 자랑이요 동창은 평생의 길동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가슴 뭉클하다. 고향에서의 1박2일은 더 그랬다.

자랑스런 용산초등학교 제51회 친구들! 모두 잘 지내다 내년에 또 보세. 그리고 내년 동창회도 우리 고향 장흥 용산에서 하면 어떨까?

社 說

허가 내주고 소송하고 어리숙한 광주시 행정

광주시가 차량 통행이 많은 큰 도로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건축을 허가했다가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들어 반발하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불 보듯 뻔한데도 면밀한 소음 대책 없이 허가부터 내주었다가 부담을 떠안는 근시안적 행정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택지 개발 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제2 순환도로 4구간(신가 지하차도~산월IC) 방음시설 설치비 수백억 원을 부담하게 됐다. 이 소송은 수완지구 택지를 개발한 LH에 이익금의 절반인 42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시는 이 돈을 받게 되면 해당 구간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LH가 920억 원의 개발 이익금을 낸 만큼 추가로 낼 의무가 없고, 방음시설 설치도 도로 관리자인 시에 있다며 LH의 손을 들어줬다. 신창지구와 수완지구를 가로지르는 문제의 도로 주변에는 아파트 6개 단지(6010가구)가 들어섰다. 하루 수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면서 소음이 주간 70.6dB, 야간 66.7dB로 환경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광주시는 이에 앞서 진월동과 풍암동 부근 순환도로 방음시설 설치에도 100억 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 부은 바 있다. 그럼에도 시는 최근 5년 사이 제2순환도로를 비롯해 무진대로 등 큰 도로 주변에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준 후 주민들의 소음 민원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대로변에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줄 때엔 사전에 소음과 환경 문제 등을 꼼꼼하게 살피는 게 당연하다. 더 이상 안일한 행정으로 주민들의 막대한 혈세를 날려서는 안 된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 불편이나 민원까지 세밀하게 고려하는 치밀한 행정이 절실하다.

음주 운전에 관대한 문화 더 이상 안 된다

민주평화당이 엊그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의원의 징계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지난달 말 음주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었다. 적발되기에 앞서 이 의원은 '윤창호 법' 발의에 참여하면서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어 더욱 논란이 컸다.

윤창호법은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으로,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에서 음주 운전 차의 추돌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군 사건이 계기가 돼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의 발의에는 윤 군의 친구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글이 SNS상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음주 사망 사고 운전자에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워싱턴 주는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고, 엘살바도르는 적발 즉시 총살한다"며 강도 높은 처벌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어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 5당 대표가 각 당의 이념을 초월해 만나자는 뜻으로 만든 모임인 '초월회'가 이날 윤창호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의 정기국회 처리에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음주 운전은 적발만 면하면 된다거나 재수가 없어 단속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용주 의원 이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역 의원이 모두 16명이나 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음주 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와 같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로또 궁전'

파리 여행자들이라면 누구나 들르기 마련인 루브르 미술관은 애초 왕궁으로 지어졌다. 궁전을 지은 이는 국왕 프랑수아 1세(재위 1515~1547)였다. 전쟁을 좋아했던 그는 건축과 예술도 사랑했다. 말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프랑스에 초대한 사람도 그였다. 이탈리아인인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프랑스의 루브르 미술관에 있는 것도 다빈치 사후 프랑스 왕가가 작품을 넘겨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호전적이어서 여러 번 이탈리아 원정을 감행했지만 번번이 패했고, 신성로마 황제 카를 5세에게 포로로 잡혀 스페인 마드리드에 유폐되기도 했다. 이때 파리 시민들이 보석금을 모아 석방시키는 대신 왕이 파리에 머물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파리에 정착할 수 있게 된 프랑수아 1세는 궁전을 신축하려 했으나 오랜 전쟁으로 인해 재정이 바닥난 상태였다. 왕은 고민 끝에 묘수를 찾아냈다. 건축 자금을 풍부히 걷되, 시민들의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로또를 발행한 것이다.

푼돈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로 로또는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 결국 우리는 로또 때문에 루브르 미술관을 볼 수 있게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로또 복권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지만 지금도 프랑스 로또는 세계 최초의 근대식 국영 복권으로 여겨지고 있다. 더불어 1530년대 이탈리아 제노바 공화국 정부가 구매자에게 90개의 숫자 가운데 5개를 고르게 한 뒤 당첨자를 뽑았던 '5/90 게임'이 최초 로또라는 설도 있다. 여기에 고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BC 63~AD 14) 황제가 연회 입장 티켓에 일련번호를 표시해 참가자들에게 나눠 주고 추첨을 해서 노예·유람선·저택 등을 준 것이 로또의 효시라고도 한다.

최근 미국 복권인 '메가밀리언'의 당첨금액이 1조 7000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두 명의 당첨자가 나온 '파워볼'도 당첨금이 8000억 원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 역시 로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첨 확률만 놓고 보면 헛된 망상이겠으나 1000원 짜리 지폐 한 장으로 짧은 시간이나마 행운을 꿈꿀 수 있다면 오히려 정신 건강에는 이로울지도 모르겠다.

/채희종 여론매체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전남본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